

복수사상을 통한 선지자들의 세계관

- 나훔서 1:2에 나타난 NQM의 용례 -

이경실(대신대학교 신학과)

구약의 복수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NQM이다. 이 단어는 ‘복수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로 합법적 권위에 의해 시행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법률적인 용어이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는 부정적이지만 여호와가 주어로 사용될 때에는 긍정적이다. NQM 은 구약에서 79번 사용되며 특히 선지서에 나타나는 빈도수가 높고, 그 중에서도 나훔서 1:2절은 신성 4자음과 결합이 된 NQM이 세 번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훔서 1:2절을 중심으로 선지자들이 가졌던 복수사상과 그들의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I. 구약과 복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수’라는 행동들이 자주 묘사되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라멕의 노래(창4:23-24)에서 복수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출 21:24)라는 고대 사회에 관습으로 나타나는 ‘동태복수법’¹⁾이 발견된다. 오경에 나타나는 도피성 제도 역시 ‘피의 복수’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 내에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수’라는 인식론은 부정적이며, 구약시대의 원시적인 율법 조항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약 안에서 복수의 개념은 야만적인 ‘피의 보복’에서 ‘법치적 보복’으로 성숙해져 있으며,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즉 도피성 제도²⁾는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복수의 관습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며, 더 나아가 신학적인 관심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땅이 오염된다고 하였지만(민 35:31-34) 용서가 강조된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창 45장; 50:15-21) 다윗 역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삼상 24, 26장).

이와 같은 신학적 관점은 ‘모세의 노래’에서 핵심으로 나타난다. (신32:35) “복수와 보상은 내 것이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손해 본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다.

즉, 복수와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기자는 말씀이다. 이와 같은 ‘복수’의 개념은 사회 윤리의 근거를 이루는 ‘정의와 공의’ 개념과 연결이 되게 된다.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신10:18)는 말씀에서 ‘신원하다’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1) ‘동태복수법’이나 ‘동태보복법’ 또는 ‘동해복수법’ 그리고 ‘탈리오(talio)법’이라고도 불리며, 특히 탈리오법은 로마의 12표법(lex duodecim tabularum, 주전451-450)에서 최초로 승인되었다.

2) ‘고엘’은 “피를 보수하는 자”(avenger of blood)라고 번역하는데, 원한이나 증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 고살(故殺)인 경우, ‘고엘’은 고살자를 죽여 피의 복수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엘’ 제도는 사법제도가 발달하기 이전에, 재판 과정 없이 ‘고엘’이 고살자를 죽일 수 있는 제도로서, 고대 근동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던 사회 관습이었다. 이 관습법이 구약에서도 인정된 것이다. ‘고엘’ 제도의 근거를 구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민35:33)” 다윗-솔로몬 왕정 수립 이후, 이스라엘에도 사법제도가 발달하면서, ‘고엘’ 제도에도 여러 가지 수정이 가해졌다. 즉, “도피성”(cities of refugee)제도가 생겨나서 살인자는 재판 절차를 따라 판결을 받기까지 고엘에 의해 죽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민 35:12).

Nif'al	avenge oneself, suffer vengeance, avenge a person of, be avenged.
Pi'el	take vengeance, avenge.
Hof'al	fall to one's vengeance, be avenged.
Hitpa'el	take oneself's vengeance, avenge oneself.

또한 NQM 은 구약에서 79회 나타난다. 아래의 도표를 통하여 몇 가지 관찰이 고찰된다. 첫째, 구약의 각 권중 절반이 NQM 과 관련이 된다. 둘째, NQM 의 형태는 사사들의 기록, 역사적 이야기, 선지자의 기록, 지혜문학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셋째, NQM 단어의 사용은 어떤 시대에 제한되지 않는다. 넷째, 특별히 NQM 단어 사용은 선지서에 집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NQM 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은 그 빈도수에 있어서 현저히 적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하나님의 복수’ 라는 주제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NQM 에 집중하고, NQM 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선지서 본문 중 세 번 반복 사용되는 나훔서 1:2절을 표본으로 선택한다.

(동사)				(단수명사)	(복수명사)	구약	사용누계
Qal	Nif'al	Pi'el	Hitpa'el				
2						창	2
2	1					출	3
2				1		레	3
1					2	민	3
1				3		신	4
1						수	1
	2			1	1	삿	4
1	2					삼상	3
					2	삼하	2
		1				왕하	1
	1			6		사	7
	3	1	3		11	렘	18
2	2			3	5	겔	12
				1		미	1
3						나	3
1			2	1	5	시	9
				1		잠	1
					1	애	1
	1					에	1
16	12	2	5	17	27	합계	79

III. NQM과 관련된 연구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분노, 거룩, 질투, 저주의 기도, 거룩한 전쟁이나 여호와의 전쟁, 피의복수 등의 주제와 더불어서 연구가 되었다.

메르츠(E. Merz)와 맥케이팅(H. McKeating)의 연구는 하나님의 복수에 대하여 부분적인 언급만을 하였다. 메르츠는 그의 연구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수의 배경과 개관, 동기와 실행과 복수의 현상들의 발전을 포함하는 피의 복수를 언급했다. 특히 메르츠는 이스라엘 가운

데서 피의 복수를 행하시는 분으로 여호와를 언급했다.⁵⁾ 그는 하나님의 간섭으로서 “피의 복수” 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메르츠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복수를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63장 1-6절 뿐 이었다.

맥케이팅의 논문⁶⁾은 구약성경에서 피의 복수의 합법성에 대한 연구이다. 하나님의 복수의 합법성과 상대적인 가치를 언급한다. 그의 논문의 요지는 하나님이 복수를 행하시는 분이라면, 인간의 개인적은 복수의 필요는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복수와 거룩한 복수를 동일한 선상에 두었다.

스와르즈백(R. H. Swartzback)과 디트리치(W. Dietrich)는 하나님의 복수를 더 넓은 범위에서 취급하였다. 스와르즈백⁷⁾은 완전히 오해된 하나님의 복수의 개념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복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중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고려한다. 그는 하나님의 복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복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선택 그리고 종말론적 입장에서 복수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본문들이 연구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복수와 관련된 특별한 신학적 의미는 규정하지 않았다.

디트리치⁸⁾는 현재의 사법적, 심리학적, 윤리학적 원칙에 대한 성경적 복수의 개념을 사용한다. 개인적인 복수와 공공의 복수에 대한 현재적 구별이 단순히 구약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그에 논문에 따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수의 주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복수는 부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의의 선결조건이며, 이러한 복수의 실행을 위한 바람은 파괴적인 표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소망이고, 정의를 위한 갈망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와 죄의 심각성은 끊임없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그는 서술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사역에서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 내는 그의 주장에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그는 복수의 기능과 복수의 의미를 관련 본문들을 최소한으로 토론되었다.

복수와 관련된 주제의 확장 된 연구는 멘덴홀(G. E. Mendenhall)에게서 나타난다. 그는 주장하기를 NQM이 ‘복수하다’라는 의미보다 ‘형벌을 주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아마르나(Amarna) 서신에서 yi-KI-im, yi-IK-KI-im, 그리고 li-IK-KI-im 등이 동일한 어근에서 왔음을 들었다. 그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구축하다’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NQM 의미를 ‘방어적으로 혹은 형벌을 주어 신원하다’로 본 것이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NQM이 계약문서의 전문 용어임을 주장한다.⁹⁾ 즉 이 단어는 정상적인 법적 체계가 무너지면서 절대적인 권위자가 개입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 하였다.

그러나 피타드 (W. T. Pitard)는 멘덴홀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NGM의 관련성을 부정한다. 오히려 그는 세피르(Sefir) 비문의 아람어 NQM을 법률적 의미에서 ‘복수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아카디아어도 이와 유사화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NQM이 계약 전문 용어라는 멘델홀의 주장을 일축하였다.¹⁰⁾ 그러나 NQM이 계약전문 용어라는 멘델홀의

5) E. Merz, *Die blutache bei den Israeliten* (BZAW 20), Leipzig, 1916, 66-69.

6) H. McKeating, *Vengeance Is Mine. A Study of the Pursuit of Vengeance in the Old Testament*, ExpT 74, (1963), 239-245.

7) R. H. Swartzback, *A Biblical Study of the Word 'Vengeance'*, Interpretation 6 (1952), 451-457.

8) W. Dietrich, *Rache. Erwagungen zu einem alttestamentlichen Thema*, EvTh 36 (1976), 451.

9) G. E. Mendenhall,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1973), 69-104.

극장도 무리가 있지만 전적으로 복수의 의미만 있다고 주장하는 파타드의 견해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고대 근동문헌에 복수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권위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주로 전쟁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멘델홀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NQM의 어간이 사람이름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왕실가족의 이름에 들어 있으며, 그리고 이 단어는 정치적인 합법성과 권위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란 아펠도른 신학대학교에 구약학 교수인 페얼즈(H. G. L. Peels)는 NQM이 고대근동 문학에서 불법적인 행동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합법적 권위에 의해 시행되는 행동임을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다.¹¹⁾ 따라서 이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2장에서 언급한 대로 NQM은 구약에서 79번 사용 되었는데, 그 중 NQM이 포함된 구절은 49번 된다. 49절 가운데 12회는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49절 가운데 법률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14번이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NQM은 49절 가운데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대리자인 선지자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51회 나타난다. 위의 통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복수의 주체로서 여호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복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이고 사회의 전체적인 권위에 의해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여호와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 아래 법적인 절차를 거쳐 복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여호와의 복수는 여호와를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다. 특별히 나훔서 1:2는 신성 4자음 (hwby)라고 불리는 이름과 결합된 세 번의 NQM이 나타나는 유일한 본문이다.

IV. 함무라비 법전과 NQM

‘복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동태 복수법’을 고대 바벨론 왕조 시대의 함무라비 왕 (극전 1728-1686년)에 의해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¹²⁾에 나타난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나는 ‘복수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된다.

- (196조) -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그들은 그의 눈은 실명시켜야 한다.
- (197조) -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들은 그의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 (198조) - 만일 귀족이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그는 은 한 미나로 배상해야 된다.

동일한 신분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범죄는 동일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동태복수의 형태로 정확하게 보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신분이 다를 때는 특히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고 그 금액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스

10) Wayne T. Pitard, *AMARNA ekemu AND HEBREW naqam*, MAARV 3/1 (1982), 15-25.

11) H. G. L. Peels, *The Vengeance of God: The Meaning of the Root NQM and the Function of the NQM-Texts in the Context of Divine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OTS 31; Leiden: Brill, 1995), 42.

12) 함무라비 법전 가운데 동태복수법은 196-214조에 있다; J.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75.

라엘은 국가가 법의 수호자라는 개념이 없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시내산에 근원을 두고 있었던 율법에 복종해야 하였다(신17:18-20).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사용되었던 NQM 역시, 나훔서 1:2에서는 신성4자음과 결합되어 3번 반복 사용됨을 통하여, NQM 자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가르쳐 주며, 국가나 왕과 같은 지도자에 의해 사용됨으로 거절하고 있다.

V. 나훔서 1:2 위치와 NQM의 의미

나훔서 1:2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hw"hy> ~qenOw> aANq; lae "A zealous God and an Avenger is YHWH
 hw"hy> ~qenO an Avenger is YHWH and wrathful
 wyb'y>aol. aWh rjeAnw> wyr'c'l. hw"hy> ~qenO hm'xe l[;b;W ~~hw"hy> ~qenO~~
 and He feeds the anger against his
 enemies.¹³⁾

1. 나훔서의 전체 구조¹⁴⁾

표제: 1:1

- A. 투기하시는 하나님(하나님의 신원): 1:2-6¹⁵⁾
- B. 선하신 하나님(하나님의 구원): 1:7-11¹⁶⁾
- C. 대적과 대적의 왕의 멸망: 1:12-15¹⁷⁾
- D. 전쟁 준비 경고: 2:1-10 (“네 힘을 크고 굳게 하라,” 그러나 니스웨의 멸망)¹⁸⁾
- E. 조롱(사자의 비유): 2:11-12¹⁹⁾
- F. 대적에 대한 심판 선언: 2:13
- G. 화 있을진저: 3:1-4²⁰⁾

13) 영문 번역은 사역임을 밝힌다.

14) 나훔서의 구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G. H. Johnston, *A Rhetorical Analysis of the Book of Nahum* (Ph.D. dis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92), 46-214.

15)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현현은 그의 대적에게는 심판을,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7-8절)을 베푸신다.

16) 선지자 나훔은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을 찬양하고 이것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한다. 나훔 1:7-8은 나훔이 전하는 신탁의 주된 메시지를 요약하여 주며 나훔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틀이 된다.

17)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유다의 구원 선포(12-13절); (2) 앗수르 왕을 향한 심판 선언(14절); (3) 그의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찬양 권고(15절). 이 본문은 3:18-19과 평행을 이룬다: (1) 예언의 대상(앗수르 왕); (2) 아름다운 소식(1:15) & 앗수르에 대한 소식(3:19); (3) 산에 대한 언급; (4) 앗수르의 멸망에 대한 선포. 1:12-15에서는 앗수르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너”로 표현되고 있어 인격화된 니스웨로 본문의 흐름 상 볼 수 있다. 이 표현이 3:18-19에서는 명확히 “앗수르 왕”으로 나타난다.

18) 이 신탁은 직접화법으로 니스웨를 향하여 주의를 경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니스웨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2:6-10). 묵시(vision)가 2:3-10에 나타난다. 멸망에 대한 니스웨의 두려움에 찬 반응을 2:10에서 스타카토 형식으로 간결하지만 강조하여 전하고 있다.

19) 앗수르의 세력을 사자에 비교하고 있다. 앗수르의 세력이 사자와 같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을 말한다. 앗수르의 파멸과 사라짐을 3:16-17에서는 메뚜기떼의 날아감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한다.

20) 이 본문에서는 생생하게 묘사하는 나훔의 문학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볼

F'. 대적에 대한 심판 선언: 3:5-7

E'. 조롱(테베와 니스웨의 비교): 3:8-13

D'. 전쟁 준비 경고: 3:14-17(예비하며 견고케 하라: 그러나 메뚜기 같이 사라짐)

C'. 앓수르와 앓수르왕의 멸망: 3:18-19

나훔서의 도입부는 하나님의 찬양문체로 묘사하며(2-6절), 이어서 심판 예언을 덧붙인다(7-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예언의 중심부는 대칭 구조가 나타난다. 선지자는 경고의 외침(D/D')에서 니스웨 성벽위에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니스웨에게 공격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며, 그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묘사한다. 조롱 부분(E/E')은 수사학적인 질문들로 시작하며, 니스웨의 교만을 폭로한다. 심판 선고 부분(F/F')은 “전능하신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나훔이 선포한 예언의 중심 주제는 처음부터(1:2) 분명하게 나타난다. 나훔은 여호와가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 타오르는 분노를 터트리는 복수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 알파벳 이합체 시의 서두로써 1:2

나훔 1장의 문학적 형식은 불완전한 알파벳 이합체 시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2절에서 시작되어 10절까지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며 13절과 14절은 히브리어 자음 16번째와 18번째 글자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2절에서 시작된 알파벳이 8절까지인지, 10절 혹은 14절까지 알파벳을 연장해서 보아야 되는지, 2:3절까지를 완전한 알파벳시로 간주하여 다시 본문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견이 있다.

그러나 나훔서를 깊이 연구 한 크리스텐슨(Duane L. Christensen)은 2-8에 관한 소논문을 통해 1:2-8이 반알파벳시임을 증명하였다.²¹⁾ 그는 “음절이론”의 약점을 상기하면서 최근 크로스(F. M. Cross)와 프리드만(D. N. Freedman)에 의하여 새롭게 발전된 “음절이론”에 근거하여 본문의 시적 운율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크리스텐슨은 무리한 본문의 재구성을 비평하면서 히브리어 음절 및 운율을 기초로 하여 2-8절이 하나의 완전한 문학적 형태를 지닌 시라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증명하였다.²²⁾ 그는 이러한 점을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를 구성하였다.

- A. 야훼의 특성 (2-3a)
- B. 전사로서의 신의 출현 (3b)
- C. 우주의 반응 (4-6)
 - 1. 혼돈의 회귀
 - 2. 야훼의 진노의 날
- D. 요약 : 야훼가 가진 두 가지 면 (7-8)

그러나 그는 12년 후 1:2-8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시의 운율이 1:2-10사이에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따라서 1:2-10이 하나의 완전한 문학적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수 있다. 1절과 4절은 심판의 원인을 설명한다: (1) 피흘림; (2) 케홀(거짓); (3) 강포; (4) 능탈; (5) 미혹.

21) Duane D. Christiansen, *The Acrostic of Nahum Reconsidered*, ZAW 87 (1975), 17-30.

22) Duane D. Christiansen, "The Acrostic of Nahum Reconsidered," 17-30; idem, *The Acrostic of Nahum Once Again : A Prosodic Analysis of Nahum 1, 1-10*, ZAW 99 (1987), 409-15.

어쨌든 1:9절 이후를 알파벳시로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본문을 극적으로 재편집하거나 수술을 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알파벳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비록 알파벳의 절반만을 가진 알파벳의 시이라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8절 까지를 나훔서에서 완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시라고 판단함이 옳을 것이다. 비록 약간의 학자들이 1:2-10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있거나 혹은 알파벳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1:2-8이 본래 반알파벳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위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1:2-8이 알파벳시임을 증명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자.

- (2.)[⌘]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도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3.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2) 여호와와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띠끝이로다
- (4.)[Ⓛ]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 (7)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 (5.)[Ⓜ]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도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 (1)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 오르는도다
- (6.)[Ⓡ]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라
- (11)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 (7.)[Ⓟ] 여호와를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 (9)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 그가 범람한 물로
- (2)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첫째로 위의 본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듯이 2(⌘a)와 2(2b)사이가 다른 알파벳과는 달리 긴 간격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각각 두개의 행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시적인 연속성을 깨뜨리고 있다. 둘째로 4b에서는 마소라 본문이 사실상 1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이하 BHS)에서는 4b의

23) Duane D. Christiansen, *The Acrostic of Nahum Once Again : A Prosodic Analysis of nahum 1, 1-10*, ZAW 99 (1987), 409-15.

첫 단어인 **אֱלֹהִים**와 비슷한 뜻을 가진 **אֱלֹהִים**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한다. 셋째로 6a에서도 말소라 본문이 **ו**으로 시작하지 않고 **אֱלֹהִים**로 시작한다. 그런데 6a를 알파벳의 순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단어인 **אֱלֹהִים**와 다음 단어인 **אֱלֹהִים**를 서로 바꾸어 읽어야 한다. 넷째로 7b에서 **ו**로 시작하지 않고 **וַיִּי**의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 **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ו**를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로 8a가 **ו**가 8a에서 시작하지 않고 8b에서 시작하므로 8a가 7b 부분으로 옮겨져 8a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우선 1:2-8까지의 경우에는 절수를 서로 옮긴다거나 그 순서를 바꾸어야 하는 중요한 수정이 아니라 단순한 단어의 자리바꿈이거나 가능한 본문 비평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즉 간단한 수정을 통하여서 본래의 알파벳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본문이 시적인 운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2-8이 완전한 하나의 문학적 단위임을 논의함으로써 본문이 원래 반알파벳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2-8이 하나의 완전한 문학적 단위라는 것은 수사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더욱 더 분명하여진다.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그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야훼의 특성 (2-3a)
 - 1. 진노의 하나님 (2)
 - 2. 은총의 하나님 (3a)
 - 3. 심판의 하나님 (3a)
- B. 하나님의 현현 (3b)
- C. 창조의 하나님 (4)
- B'. 하나님의 현현 (5)
- A'. 야훼의 특성 (6-8)
 - 1. 진노의 하나님 (6)
 - 2. 은총의 하나님 (7)
 - 3. 심판의 하나님 (8)

야훼 하나님의 특성을 2-3a에서 설명하면서 시의 마지막 부분(6-8)에서 다시 반복하여 야훼 하나님의 특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3b;5)에 대한 묘사는 본문의 중심에 속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사(4)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ABCB'A'의 모양을 지닌 교차대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차대구의 형태에 근거하여 2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3. 2절에 나타나는 복수와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

알파벳시의 첫 절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전사로서의 하나님이 자신을 대항하는 적들에 대하여 그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로 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종종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진다(신 6: 15; 출 20: 5; 겔 38: 18-19). “진노하시는(칸노, qanna)”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카나(qana')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중심적 의미는 결혼관계에서 발생하

는 “질투”와 관련이 있다. 즉 간음을 행한 자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레 20: 10; 신 22: 22). 이 죽음의 형벌은 질투의 진노에서부터 기인한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되어진다 (호 2:2).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자이시다(출 20:5). 이러한 관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된다 (민 25:11).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시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 24:19).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결코 백성들은 어떠한 다른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종종 이방의 다른 신들과는 달리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관계되어 묘사되어진다(왕하 19: 31; 사 42: 13; 율 2:18). 즉 하나님의 질투는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질투란 본질적으로 그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경쟁자를 용납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질투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과의 계약적 관계에서 결코 경쟁자를 허용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되고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호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특성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여 질투의 진노를 부는 전사자(warrior)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복수하시는 (노캄, נָקַם)” 이란 NQM 분사형으로서 어근과 그 파생어가 2장에서 언급했듯이 구약에 79번 가량 나타나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말은 본 절에서만 3번이나 나타난다. 하나님의 복수행위에 대한 강한 강조이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수행위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복수한다”는 말은 윤리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나 구약에서는 단순히 윤리적 관점에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구원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자비의 개념과 함께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며 정의로운 분으로서 죄악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의 심판을 말하는 구원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²⁴⁾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보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 :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 때에 갚으리이다. . . .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 . .” (신 32:35, 41). 정의의 실현은 인간의 열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의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참조, 삼상 24:12). 그러므로 연구사에서 언급되었던 멘텐홀의 견해는 타당해 보인다. 즉,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적 관계를 근거하여 NQM을 이해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적으로부터 구원하고자 “복수”하시는 것이다.²⁵⁾ 야훼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의 백성을 열정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의의 심판으로서의 복수를 하시는 것이다.

24) Elmer B. Smick, "naqam," TWOT vol. II, eds. R. L. Harris, G. L. Archer, Jr., B. K. Waltke (Chicago:Moody Press,1980), 598-99.

25) G. E. Mendenhall,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1973), 69-104, especially 76-77

셋째로 하나님은 진노의 소유자이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위에서 논의한 질투와 보복의 개념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는 “진노하시는데”는 “바알 험마”라고 읽는다. 가나안의 신 바알의 이름이 사용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바알이 신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고 “진노하시는데”이라는 히브리어의 속어로 이해되어진다. NRSV성경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영어성경에서 “진노하시는데”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도 자주 하나님의 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든 혹은 이방민족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정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그의 복수의 진노를 부을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변호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훔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신의 니스웨 멸망이라는 메시지에 적용하고 있다. 니스웨의 위대함과 힘에도 불구하고 니스웨는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 멸망은 단순히 웅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대적에 대한 복수행위인 것이다. 이 세상의 악을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정의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저자는 이 알파벳시를 서두에 둔 신학적 목적이 무엇인가? 서두에 기록된 이 알파벳시가 나훔서 전체에서 갖는 기능은 무엇인가? 또한 1:2절이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 2절부터 8절까지 사용된 히브리어의 자음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11개의 알파벳을 가진 시는 아마도 아직 성취해야 할 것이 남아 있는 것을 표현하는 예언자적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법적인 부분 보다는 그가 가졌던 세계관은 복수하기 위하여 현현하시는 전사로서의 여호와의 강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앗시리아에게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이방의 어느 강한 나라라 할찌라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니스웨를 중심으로 한 앗시리아의 멸망과 파괴가 역사적으로 메데와 바벨론의 군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훔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니스웨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NQM 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여호와의 이름 아래 법적인 절차를 거쳐 복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가졌던 복수를 통한 세계관은 공적이며 법률적인 정의와 공의의 실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Beaugrande, de. R. and Dressler, W. U.(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 Christiansen, Duane D.(1975), “The Acrostic of Nahum Reconsidered” ZAW, 87, 17-30.
- Christiansen, Duane D.(1987), “The Acrostic of Nahum Once Again: A Prosodic Analysis of nahum 1, 1-10” ZAW, 99, 409-15.
- Dietrich, W.(1976), “Rache, Erwagungen zu einem alttestamentlichen Thema” EvTh, 36, 451.
- Harris, R. L. and Archer, G. L. and Waltke, B. K. ed.(1980), *TWOT vol. II*, Chicago: Moody Press.
- Johnston, G. H.(1992), *A Rhetorical Analysis of the Book of Nahum*, Ph.D. dis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 trans., Richardson, M. E. J.(2001),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Leiden: Brill.
- Mckeating, H.(1963), “Vengeance Is Mine. A Study of the Pursuit of Vengeance in the Old Testament” ExpT, 74, 239-245.
- Mendenhall, G. E.(1973),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 Merz, E.(1916), “Die blutache bei den Israeliten” BZAW, 20, 66-69.
- Peels, H. G. L.(1995), *The Vengeance of God: The Meaning of the Root NQM and the Function of the NQM-Texts in the Context of Divine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OTS 31; Leiden: Brill.
- Pritchard, J. B. ed.(1969), *Ancient Near Eastern Tex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tard, Wayne T.(1982), “AMARNA ekemu AND HEBREW naqam” MAARV, 3/1, 15-25.
- Swartzback, R. H.(1952), “A Biblical Study of the Word 'Vengeance' Interpretation 6, 451-457.

(Abstract)

The vengeance of God has generally the negative connotations. but The vengeance of God in the Old Testament Prophetic Books are various in mean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unction and meaning of God's vengeance with NQM.

In case of NQM as Human subject, there is vengeance as expression of evil disposition. these NQM-texts has a negative connotation.

In case of NQM as God subject, First, there is God's vengeance in prophecy against Israel. This section employ in context whether implicit or explicit of the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srael, as reference to the retributive punishment of God as he reacts to violation of the law or the covenant. Secondly, there is God's vengeance in prophecy against the nations. God punishes the nations which grasped threateningly at the people of God's covenant.

NQM is determined by the notion of legitimate, righteous, even necessary enactment of justice by a legitimate authority. The subject of NQM is almost always God, 85%, and further, the legal authorities or the king. Whenever the context of legitimacy is absent, the root NQM receives a negative sense and describes the conduct of a hostile individual or group.

The vengeance of God in the Old Testament is reaction to violation of God's kingship, God's holiness, God's justice, God's love. Through of the defeat of all anti-powers, God's vengeance prepares the way towards the coming kingdom of peace. The vengeance of God is and extension of his holiness and zeal, it is paired with his wrath and it stands in service of his righteousness. God's heart is not in the vengeance, but he does so when there is no other option. The vengeance of God is not an impersonal, disciplinary action, but it is his works of salvation of his people.

(주제어)

거룩, 공의, 복수, 보복, 분노, 언약, 응징, 처벌, 나훔

avenge, holiness, Nahum, punishment, righteousness, vengeance, vindictiveness, wrath